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Korea Research Center for Overseas Construction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2021. 6. 8

정지훈 책임연구원

해외건설협회
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

Contents

Ⅰ 2021년 세계경제 전망

Ⅱ 2021년 국제원유시장 동향 및 유가 전망

Ⅲ 2021년 세계건설시장 전망

1. 아시아, 중동
2. 중남미, 아프리카
3. 북미·태평양, 유럽

Ⅳ 주요 과제 및 향후 대응방안

Ⅰ. 2021년 세계경제 전망

(경제성장률) 각 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로 ’21년 성장률은 ’20년 대비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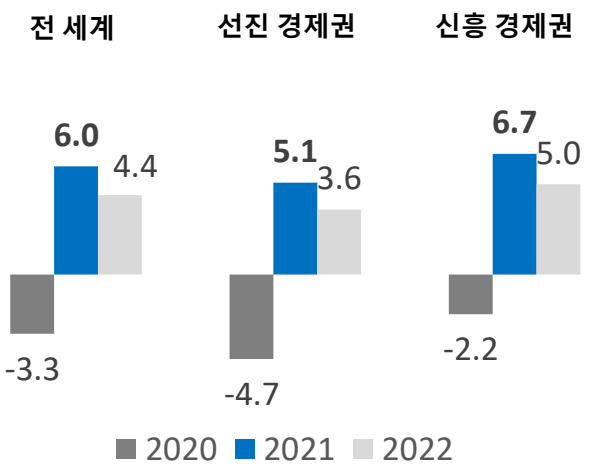
- **미국, 유럽 등 선진 경제권은 5.1%, 중국, ASEAN-5 등 신흥 경제권은 6.7% 성장 예상**

(경기선행지수) 향후 경제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는 ’21. 1월부터 코로나 이전 수준(99.4)을 상회하며 지속적인 경제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 **백신 접종률 증가는 코로나 충격을 점차 완화하고 경제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는 기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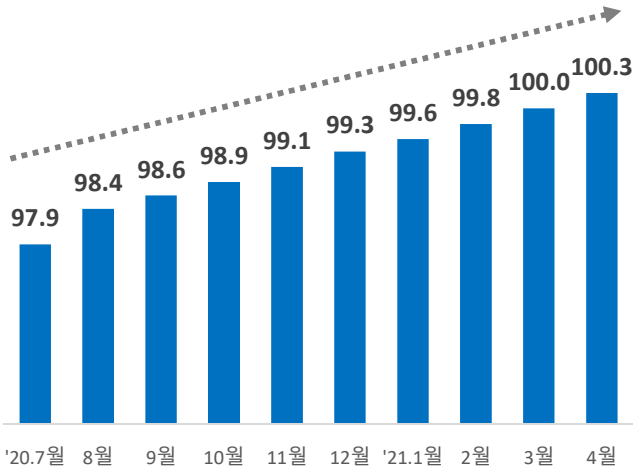
(부채 리스크) 단,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중이 ’19년말 대비 45% 포인트 급증함. 이는 신흥국 채무불이행 우려를 높이면서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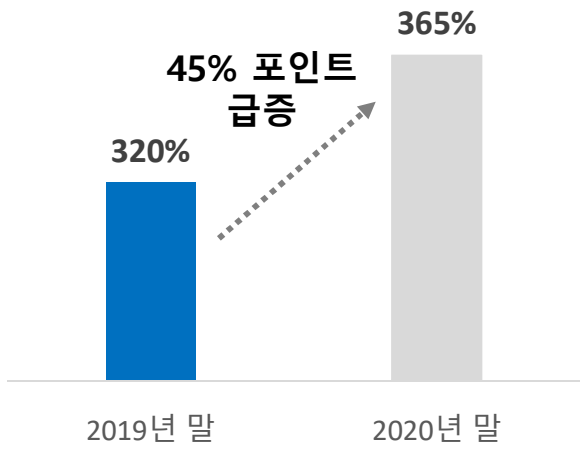
[출처 : IMF, ICAK 정책지원센터]

OECD 경기선행지수



[출처 : OECD, ICAK 정책지원센터]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중 전망



[출처 : IIF(국제금융협회, ICAK 정책지원센터]

Ⅱ. 2021년 국제원유시장 동향 및 유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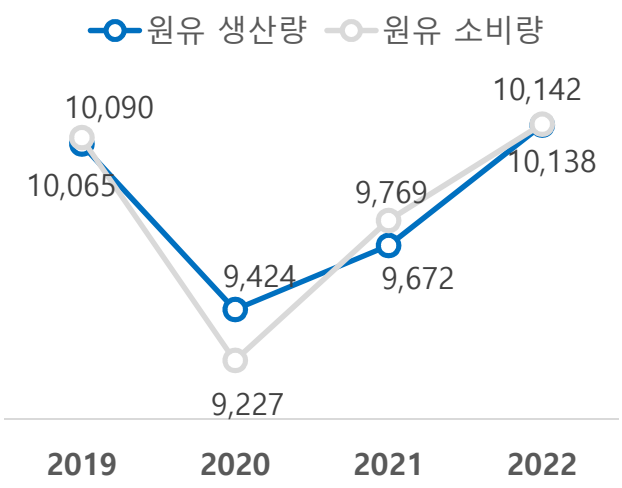
(원유 수요 회복) '21년 경제 정상화 및 원유 수요의 회복세로 '20년에 나타난 공급 과잉 현상이 해소되며, 수급 상황이 개선될 전망

- **'21년 일일 원유 소비량은 '20년 대비 5.9% 증가한 9,769만배럴, 원유 생산량은 2.6% 증가한 9,672만배럴로 전망**
- **'21년 생산량은 1분기부터 지속 증가해 4분기에는 일일 9,961만배럴 수준으로 증가 전망. 소비량도 점진적으로 증가해 4분기에는 10,005만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국제유가 안정화) '21년 2분기 61.9불, 3, 4분기 각각 59.2불 56.5불 수준으로 전망(WTI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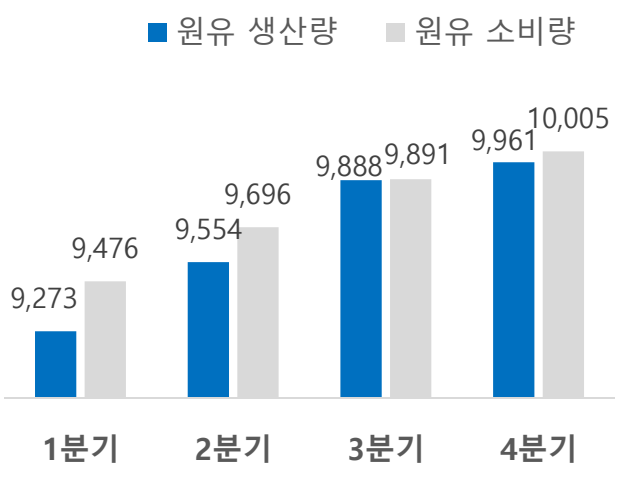
- **원유 수급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인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패러다임 변환 가속화, OPEC+ 감산 여부 등을 주목할 필요**

연도별 수급 추이 및 전망(만배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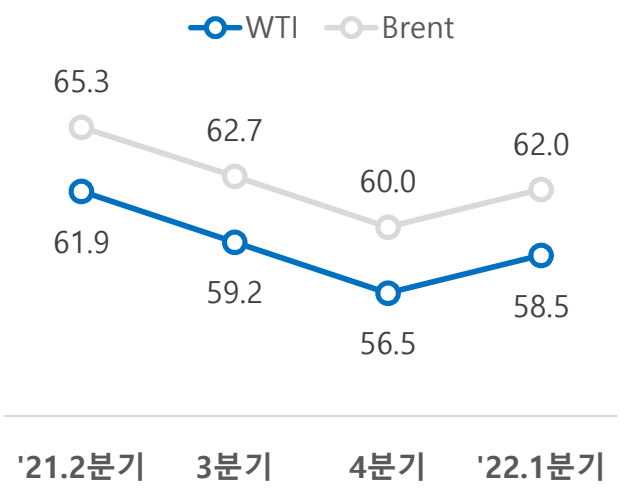
[출처 : EIA, ICAK 정책지원센터]

'21년 분기별 수급 전망(만배럴/일)



[출처 : EIA, ICAK 정책지원센터]

'21, '22년 국제유가 전망(불/배럴)



[출처 : EIA, ICAK 정책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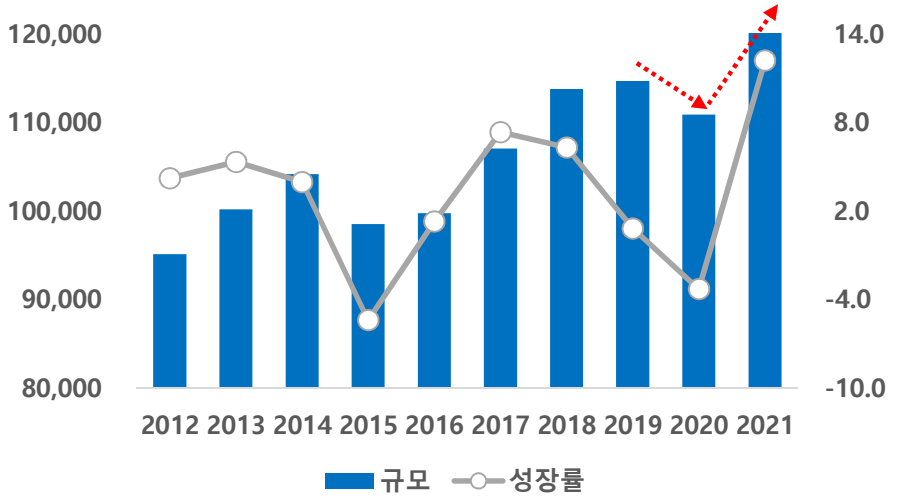
Ⅲ. 2021년 세계건설시장 전망

(세계건설시장 전망) 글로벌시장 조사기업 IHS Markit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역성장에 빠졌던 세계건설시장이 회복세에 진입하여, '21년에는 '20년 대비 12.2% 성장한 12조 4,373억불로 전망

- **점진적인 경제 성장, 건설 투자 심리 회복과 함께 각 국의 경기 부양책 및 인프라 투자 활성화 전망**
-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백신 접종률 확대 효과로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 정상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신규 발주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회복에 따른 기자재·인력 수급 원활화·기존 현장의 정상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뉴노멀 심화) 단,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저유가, 유럽·신흥국과의 경쟁 심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역 파괴 등 다양한 이슈가 뉴노멀(New-Normal)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세계건설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불,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지역별 건설시장규모 전망(단위: 억불, %)

구분	2020	2021	성장률
아시아	55,090	63,782	15.8
중동	4,798	5,275	9.9
중남미	4,270	4,599	7.7
아프리카	1,091	1,108	1.5
북미·태평양	19,548	20,898	6.9
유럽	26,058	28,711	10.2
전 세계	110,855	124,373	12.2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Ⅲ. 2021년 세계건설시장 전망 - 아시아, 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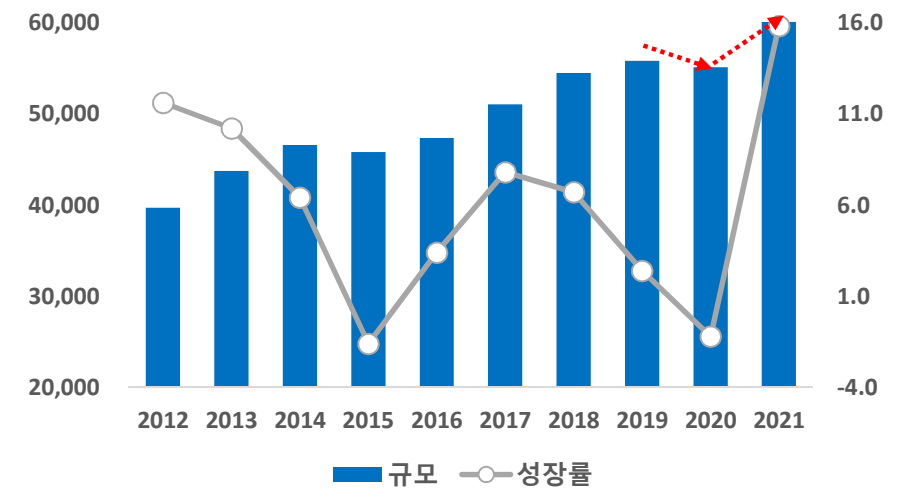
(아시아) 세계시장의 51.3%를 차지하는 아시아는 ’20년 대비 15.8% 성장한 6조 3,782억불로 전망

- 주요 사업 : 정부 최우선 프로젝트인 587억불 규모의 북남고속철도(베트남), 3개의 공항을 연결하는 70억불 규모의 철도사업(태국), 신수도 이전사업, 25개 신공항사업(인도네시아), 350MW 수준인 태양광 발전용량(capacity)을 2030년까지 2GW 수준으로 확충 전망(싱가포르)

(중동) 세계시장의 4.2%를 차지하는 중동 시장은 ’20년 대비 대비 9.9% 성장한 5,275억불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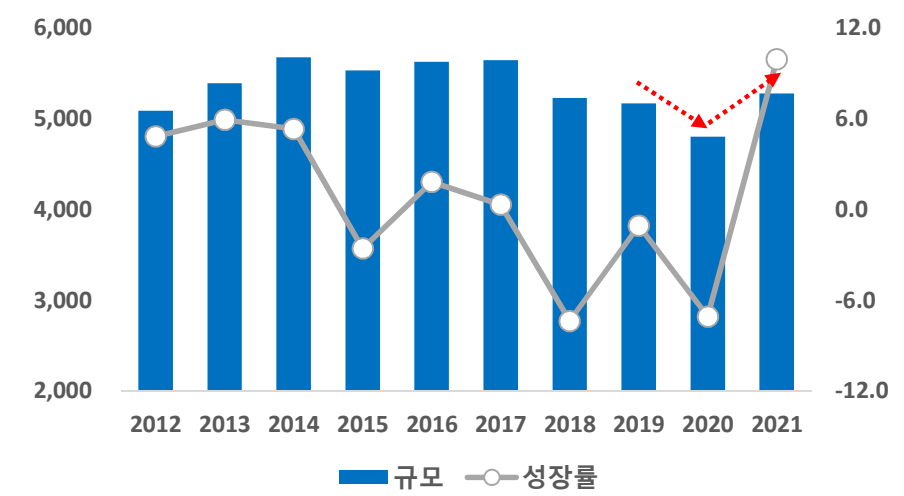
- 주요 사업 : 탈석유경제체계 추진 및 경기 부양을 위해 133억불을 토목, 건축, 민생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사우디아라비아), North Field Expansion (가스전 사업)을 비롯해 2022년 월드컵 추진을 위한 1,500억불 규모의 인프라 사업(카타르), 경기 부양을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 분야 지원에 343억불을 투입(UAE)

아시아 건설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불,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중동 건설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불,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Ⅲ. 2021년 세계건설시장 전망 - 아시아, 중동

아시아

국가	주요 경기부양책 내용
베트남	▪ '21~'25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약 174억불 지출 ▪ 약 587억불 규모의 북남고속철도 사업 추진 ▪ 제조업 기지 지향, 관련 발전·도로·공단 및 물류단지 개발에 주력
싱가포르	▪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주요 대규모 MRT 사업 단계적 발주 예정 ▪ 신규 MRT라인 등 주요 인프라 투자를 위해 약 680억불 규모 채권 발행
인도네시아	▪ '21년 건설사업 착공, '24년부터 단계적으로 수도 이전 개시를 위한 신수도 이전사업에 약 400억불 이상 투입 계획
인도	▪ 도로·항만·국방 프로젝트에 약 34억불을 추가로 지출하고, '21년 3월까지 주정부에 약 16억불을 무이자로 대출
필리핀	▪ '20년에 추진이 지연된 'Build Build Build Program'을 재추진하여, '21년 경제성장 견인 계획 ▪ '21년 인프라 사업 추진에 약 230억불 투자 예정

[출처 : 각국 정부 홈페이지,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보도, ICAK 정책지원센터]

중동

국가	주요 경기부양책 내용
사우디	▪ 약 420억불의 경기부양책 마련 ▪ 서울시의 43배 규모의 '네옴 신도시' 건설 및 리야드 주택사업 등 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재개 ▪ 탈석유화 산업 구축을 위한 다수의 경기 부양 프로젝트 추진
UAE	▪ 약 340억불의 경기부양책 마련 ▪ 탈석유화 추진 및 태양에너지프로젝트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 '21년 Projects 예산, '20년 대비 46% 증가
카타르	▪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206억불의 경기부양책 마련 ▪ '20년 247억불의 프로젝트 예산 중 1/3 규모(총 82억불) 프로젝트 추진이 연기, '21년 이후 추진 재개 ▪ 북부 가스전 확장 사업, 샤크 크로싱 교량 및 터널, 주요 도로, 상하수도 공사 추진
이라크	▪ 총연장 910km의 바그다드-바스라 연결 철도 건설, 바스라 태양광 발전소 등 우선 추진 ▪ 유가회복 이후 건설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가능하여 '22년 이후 활성화

[출처 : Gulf Times,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보도 출처, 각국 정부 홈페이지, ICAK 정책지원센터]

Ⅲ. 2021년 세계건설시장 전망 – 중남미, 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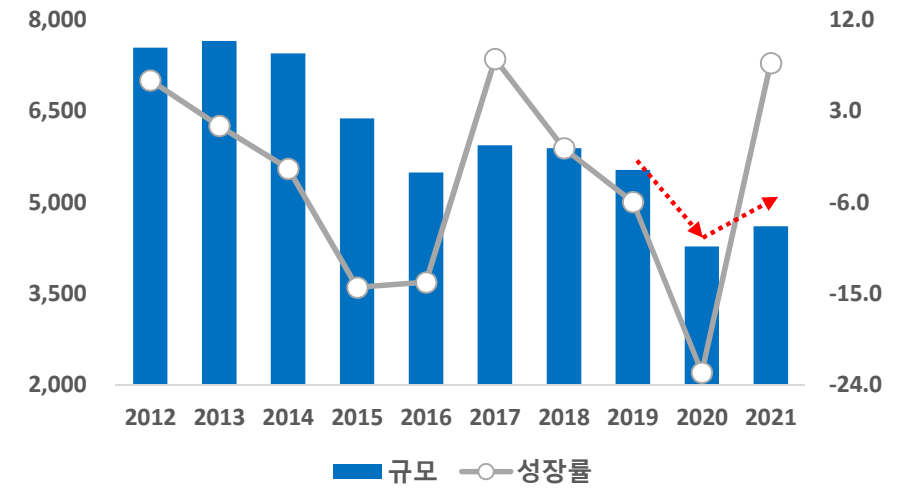
(중남미) 세계시장의 3.7%를 차지하는 중남미 시장은 ’20년 대비 7.7% 성장한 4,599억불로 전망

- **주요 사업 : 향후 5~6년간 60억불 규모의 철도망 프로젝트 투자(브라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보고타, 칼리, 메데인 등 60개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 중(콜롬비아), 리마 국제공항 확장사업(13억불) 및 살라베리 항구 건설사업(1억불)(페루)**

(아프리카) 세계시장의 0.9%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시장은 ’20년 대비 대비 1.5% 성장한 1,108억불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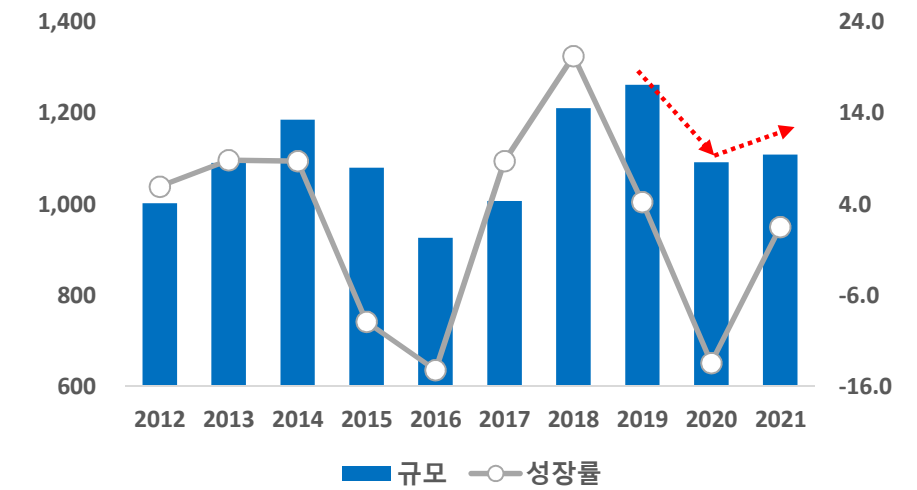
- **주요 사업 : 매년 30만호 주택 건설사업, 도로 사업(나이지리아), 향후 10년 동안 25개 에너지 프로젝트에 182억불, 65개 교통 프로젝트에 198억불 투자 예정(남아공), VISION 2030 관련한 LAPSSET(Lamu Port-South Sudan-Ethiopia Transport Corridor Project) 사업과 15억불 규모의 표준궤도철도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케냐)**

중남미 건설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불,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아프리카 건설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불,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Ⅲ. 2021년 세계건설시장 전망 – 중남미,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	주요 경기부양책 내용
멕시코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 및 정부 긴축정책 실시 ▪ 신자유주의적 경기부양책 반대. 사회복지, 공적투자를 통한 위기 대응 추진 ▪ 국가 인프라 프로그램(PNI)을 통해 국책 인프라 사업(마야철도,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산타루시아 국제공항 등) 추진
브라질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약 1,500억 헤알(약 265억불)의 경기부양책 실시 ▪ '국가 에너지 계획 2050'에 따른 에너지원별 생산 전망 및 해결과제 제시 ▪ '21년 전력 부문에 최대 37억불 투자 및 '50년까지 재생에너지 45% 목표
페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약 265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 실시, GDP의 약 12%까지 지출금액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 ▪ 10억 달러 규모의 100년 만기 국채 발행 ▪ 경제회복을 위해 메트로 3,4호선, 도로, 통신망 구축, 상하수도, 변전소 및 전력산업 등 인프라 사업 중점 추진
아르헨티나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약 10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 실시 ▪ 주택공사, 학교수리 등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약 1천억 페소(약 11억불) 투입 ▪ 경기부양책과 동시에 세금 감세 및 인프라 지출 증대 정책 추진

[출처 : 각국 정부 홈페이지,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보도 출처, EMERiCs, ICAK 정책지원센터]

아프리카

국가	주요 경기부양책 내용
나이지리아	▪ 500억 나이라(약 13억불) 규모의 코로나19 대응기금 마련 ▪ 2.3조 나이라(약 59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 실행 ▪ 국가경제지속가능계획(NERP) 하에 교통인프라 사업 우선 추진
남아프리카 공화국	▪ 약 215억 랜드(약 12.4억불) 규모의 방역예산 책정하여 대응 ▪ GDP 10%에 해당하는 5천억 랜드(약 300억불) 규모 경기부양책 실행 ▪ 교통 및 에너지 프로젝트 위주로 투자 예정
케냐	▪ 537억 실링(약 5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 실행 ▪ 코로나19 경제회복 전략 하에 약 18.5억불 규모 PPP 추진 계획 ▪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압박 속 민자 유치, 차관조달을 통해 인프라 사업 추진

[출처 : 각국 정부 홈페이지, 로이터, 주요 언론보도 출처, KIEP 세계경제포커스, ICAK 정책지원센터]

Ⅲ. 2021년 세계건설시장 전망 - 북미·태평양,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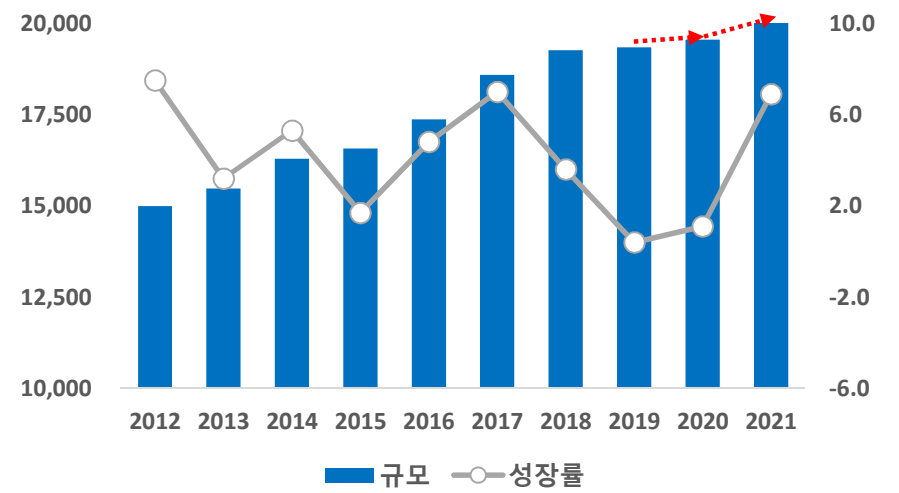
(북미·태평양) 세계시장의 16.8%를 차지하는 북미·태평양 시장은 '20년 대비 6.9% 성장한 2조 898억불로 전망

- **주요 사업 : 4년간 2조불을 재생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며, 기존 도로, 교량, 댐 등의 인프라를 유지 보수하는데 2025년까지 1.5조불, 2040년까지 5.0조불이 소요(미국), 37억불 규모의 토론토 지하철 확장 사업 등 교통 인프라 사업 기회가 증가할 전망(캐나다)**

(유럽) 세계시장의 23.1%를 차지하는 유럽 시장은 '20년 대비 대비 10.2% 성장한 2조 8,711억불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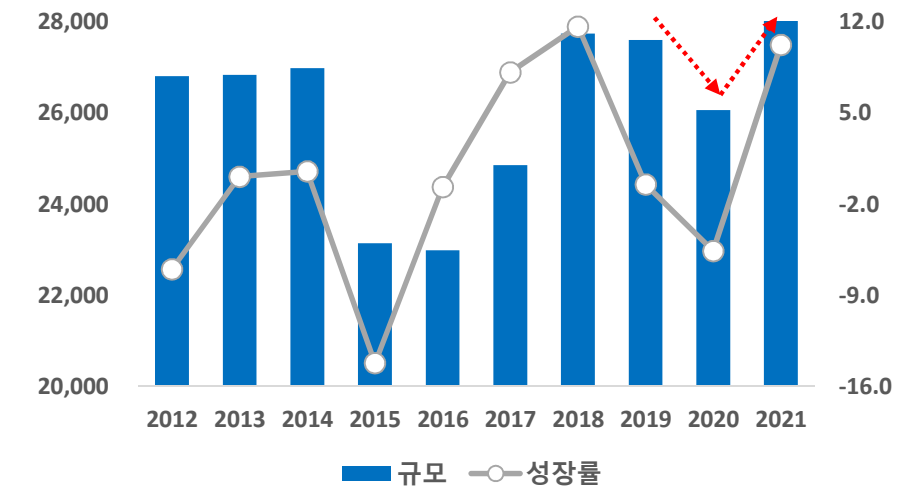
- **주요 사업 : Tri-City 우회도로 PPP사업 및 발트해 연안의 육상풍력발전소(폴란드), 31억불 규모의 키예프 우회도로, 흐멜니츠키 원자력 발전소 확장사업(우크라이나), 2030년까지 40여개 신규 병원 건립 사업 등 (영국)**

북미·태평양 건설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불,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유럽 건설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불,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Ⅲ. 2021년 세계건설시장 전망 - 북미·태평양, 유럽

북미·태평양

국가	주요 경기부양책 내용
미국	▪ 총 4.8조불('20.3월 2조불, '20.12월 0.9조불, '21.3월 1.9조불)의 경기부양책 ▪ 바이든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친환경 인프라 분야에 총 2조불의 자금 투자(최대 4조불 수준의 인프라 법안 추진 중) ▪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대, 인프라 시설 현대화 추진
캐나다	▪ 약 572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 실행(직접지원비, 납세 유예 및 면제 등) ▪ '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 ▪ 3개년 녹색경제회복 전략을 위해 약 80억불의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 저탄소 경제 실현, 광대역 통신망 건설,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등 추진

[출처 : 각국 정부 홈페이지,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보도 출처, 한국은행, PwC, ICAK 정책지원센터]

유럽

국가	주요 경기부양책 내용
EU	▪ 7.5천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 조성(5천억 무상, 2.5천억 저리 융자) ▪ 녹색·디지털 정책으로 전환, '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 실현 ▪ 건물 및 인프라의 대규모 혁신과 순환경제 투자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영국	▪ 약 4,455억 파운드(약 6,164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 실행 ▪ 기후변화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에 약 373억불 규모의 투자 추진 ▪ '21년 내 인프라은행(Infrastructure Bank) 설립(약 166억불 규모) ▪ 도로·철도·통신망·방재 등 주요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장기 전략 수립
독일	▪ 1,300억 유로(약 1,527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 실행 ▪ 기후변화, 5G, 디지털 전환, 친환경 에너지 등이 경기부양책의 핵심 ▪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수소경제 도입을 위한 R&D 및 인프라 구축 추진
프랑스	▪ 녹색경제 전환(300억 유로), 산업경쟁력 제고(350억 유로), ▪ 실업청년교육(350억 유로) 등 1,000억 유로(약 1,175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인 '프랑스 경제 복구 계획' 실행

[출처 : EU 및 각국 정부 홈페이지, 주요 언론보도 출처, FKCCI, PwC, ICAK 정책지원센터]

상대적으로 저유가 영향이 작은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진출 추진

- 신흥시장의 특수 토목 및 고급 건축 등 공략
- 교통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투자개발형 사업
- 공항('40년까지 연평균 4.5% 고성장 전망), 철도(아시아, 선진국 중심 고속철, 메트로 등)

[지역·공종별 국제유가와의 상관계수]

중동	0.86	플랜트	0.88
아시아	0.81	토목	0.72
신흥시장	0.35	건축	0.71

[출처 : 해외건설DB,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2019]
* 기간 : 1980~2019, WTI 기준 / 신흥시장 : 북미·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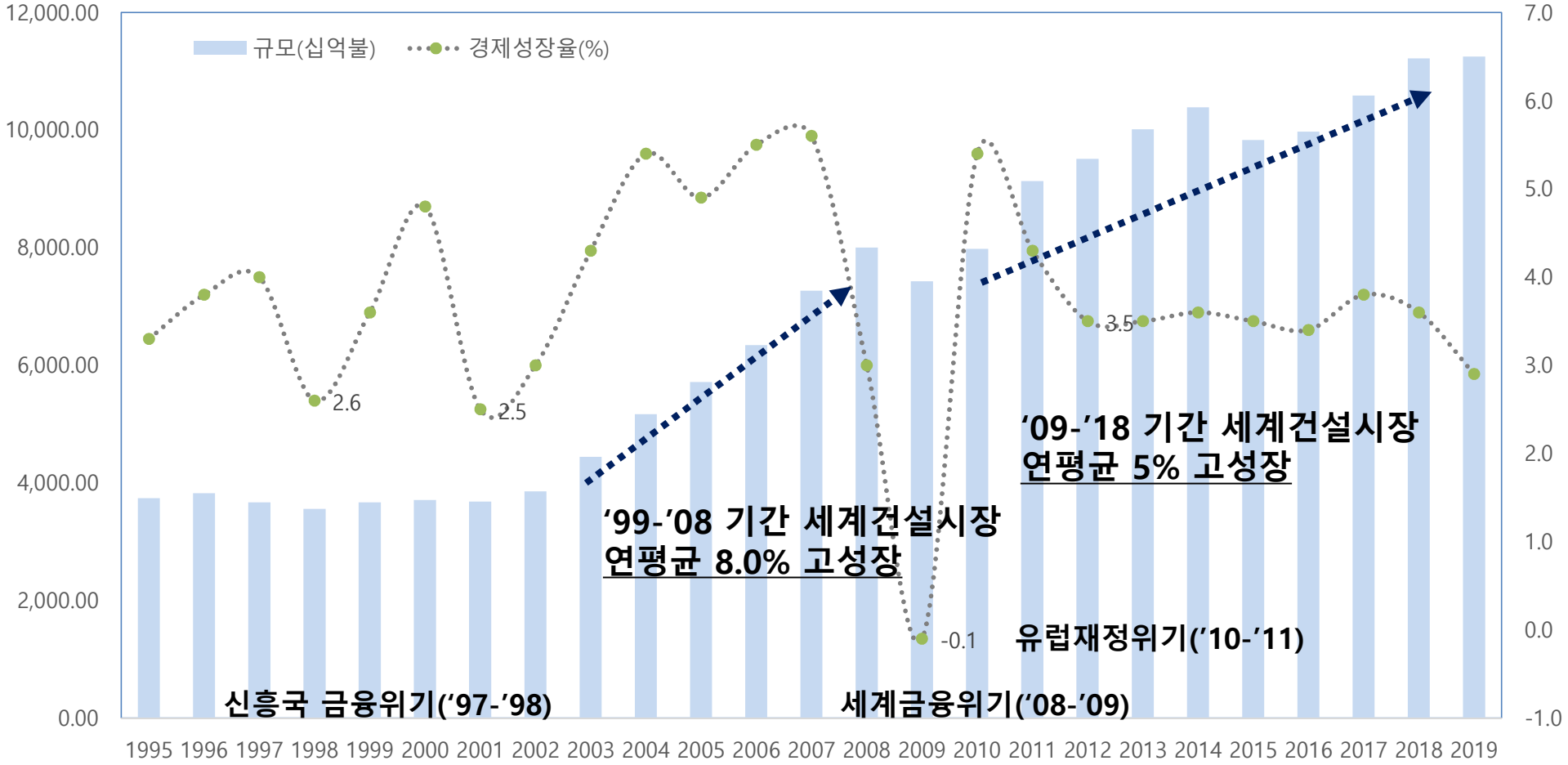
신규 자금 공급을 추진 중인 World Bank 등 MDB 사업 위주 진출

- World Bank, 코로나19 관련 120억불 규모 긴급 자금지원 계획 발표('20. 3)
- ADB, 인도네시아 인프라 개발 차관 27억불 지원계획('20. 3)
- AIIB, 코로나19 위기대응기금(Crisis Recovery Facility, CRF) 활용

전 세계 경기부양책 확대에 따른 발주 증가세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 **세계건설시장은 '98년(아시아), '08년(미국), '10년(유럽)등 경제위기 직후 연평균 8%('99-'08), 5%('09-'18)의 고성장**

[세계 경제성장률 및 세계건설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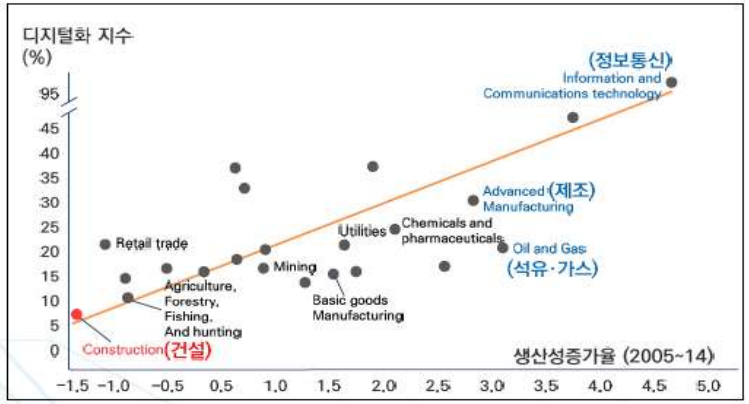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 IMF]
* 기간 : 1995~2019 / 시장규모는 명목(Nominal), 경제성장률은 실질(Real) 기준

Ⅳ. 주요 과제 및 향후 대응방안

코로나19로 혼란을 겪고 있는 주요 경쟁사의 공백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

- 신흥시장의 특수 토목 및 고급 건축 등 공략
- 해외건설산업의 Digital Transformation 추진(IT 융복합 등)
- ODA 사업 활성화를 통한 타당성 조사 지원 및 후속사업 연계
- 스마트시티, 고부가 통합설비등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공종에 대한 경쟁력 확보

[디지털화 수준과 생산성 증가의 상관관계]



[출처 : Mckinsey Global Institute(2017.2)]

[주요국의 Digital Transformation 추진 현황]

영국	BIM 중심 건설프로세스 혁신, Construction 2025
싱가포르	디지털 도시모델 Virtual Singapore 구축 주요 건설사업 BIM 의무화
일본	장비 자동화 중심의 i-construction 추진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진기업과의 역량 차이(Gap, %)]

클레임 관리	35	시공 관리	14
리스크 관리	35	품질 관리	13
통합 관리	34	자재 관리	10

[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프로젝트관리 역량 진단(2018)]

감사합니다.